

## 제 2 회 아시아 금속표면처리 포럼에 다녀와서

이 주 성\*

지난 6월 1일부터 3일간 일본 동경에서 제 2 회 아시아 금속표면처리포럼이 개최되었다. 6월 1일의 본 회의에 앞서 5월 31일에 세계무역회관 39층에서 각국 대표의 VIP meeting이 있었다. 주최국인 일본측은 금속표면기술협회 회장 松永正久 (Matsunaga, M) 박사 외 4명, 한국은 본인이, 홍콩은 홍콩표면처리학회 회장 王輝泰 (Wong, F. T) 박사, 자유중국은 금속표면 기술잡지사 사장 葉明仁 (Ken, M. J) 씨, 중공은 武漢재료보존연구소 부소장인 叶揚祥 (Ye Yang Xinng) 씨, 인도네시아는 국립 금속연구소의 Wahyudin 씨, 그리고 인도는 New Electro Metallics의 Chhabria 씨가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 3 회 퍼럼은 한국, 중공, 대만 등지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떠한 등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관계등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홍콩은 완충지대이니 홍콩도 거론되었으나 결국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단지 표면처리의 앞으로의 문제 등 여러가지 이야기의 뜻을 피우고 해산하였다.

다음날 6월 1일부터 3일간의 포럼에서는 7편의 각국대표 기조연설과 29편의 연구발표가 실틈도 없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약 200명을 넘었으며 15개국에서 온 참가자는 약 70명 정도로 외국의 참가 인원 순위는 중공, 자유중국, 한국의 순위였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 표면공학회 전회장인 염희택 박사님이 “메달에의 금도금”, 서울대의 이동녕 박

사가 “전해 조건에 의한 동박의 조직, 구조 및 기계적 성질”, 국립공업시험원의 이구중 과장이 “알루미늄샷시의 품질개선사례”, 임공례 과장이 “도금공장의 폐수처리 현황”, 박광자 연구관이 “알루미늄의 자연 발색에 관하여”, 한국기계연구소의 권식철 박사가 “Pulse 전해법에 의한 크롬도금 피막의 물성”, 본인이 “한국의 금속표면기술, 어제와 오늘”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으며 그 외에 하이영 부회장, 김중찬 부회장이 참석하여 발표자들을 격려해 주었다.

이구중 과장과 필자는 좌장을 맡기까지 하였다.

이 발표회에서 국립공업시험원의 박광자연구관은 발표내용, 발표태도 그리고 슬라이드 등이 잘 되었다는 이유로 폐회식때 중공 남경대학의 Fang Jing-li 씨와 함께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발표논문의 수준을 보면 아시아에서는 역시 일본 다음에 우리 순위구나 하는 생각을 질게 가질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모든 공업면에서 아시아의 선도적 입장에 서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도 들었다.

회의 기간중 여러나라 사람과 접촉하였으나 특히 중공의 東北工学院 강사인 金斗元씨는 한국 교포라면서 우리말도 제법 잘하며 더욱 놀란것은 우리 공학회의 “금속표면처리” 잡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남경대학의 Fang 씨는 우리 “금속표면처리”에 나온 해설을 보내달라고 중공에서 메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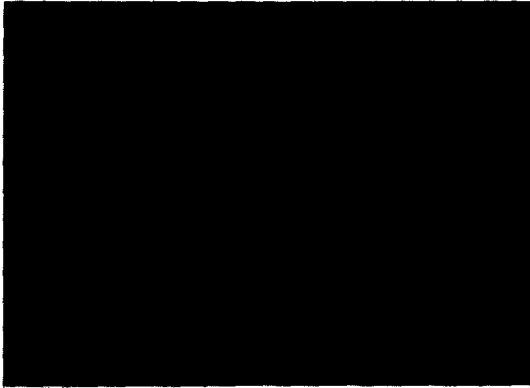
\* 본 금속표면공학회 회장

오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우리 “금속표면처리”도 해외에서 관심을 갖고 있음이 입증된 셈이므로 더욱더 좋은 학술지로 발전시켜야 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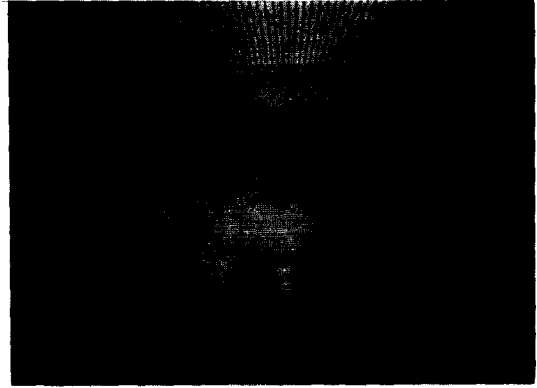
포럼 마지막날에 두조로 나누어 공장 견학이 있었는데 나와 임과장, 박연구관은 아크릴, engineering plastics 등 주로 자동차 부품인 플라스틱 도금을 하는 “마루이 공업주식회사”와 PCB, IC기판 등에 귀금속 도금을 하는 “일본 platig 주식회사”를 견학하였다. 특히 후자의 공장은 비밀보장을 위해 일본인의 출입을 삼가해 달라는 회사인데 사장이 직접 자세히 안내해 주어 살실히 구경할 수 있어 큰 도움을 주었다.

포럼 개최기간 중에 Met Show가 유통센터에서 열렸었는데 여기서도 여러가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좀 섭섭했다면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회원 여러분이 바로 포럼 개최 기간중에 도일하여 공장 견학등을 하였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이국땅에서 만나보지 못함이였다.

포럼이 끝난 후에는 자유시간이여서 모처럼 열려 있는 쓰꾸바 EXPO '85에 구경갈 기회를 가져 한국관을 위시하여 테-마관에서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도마도 나무, 상추 재배공장, 광섬유로 태양광을 집광전달시켜 미래의 지하도시 건설에 필요한 조명문제의 해결, 로봇의 피아노 연주 및 기타 최첨단 기술의 현장등을 접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1주일간의 여행이였다.



기조연설하고 있는 필자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에서 발표자들이 모여 기념촬영하였다. 엄희택 박사님은 사정에 의해 이 자리에 계시지 못했다.